

‘횡단루트’ 3시간 30분... 가장 인기있는 코스

관악산 오르는 길

관악산(冠岳山·631m)과 삼성산(三聖山·455m)은 서울 남쪽 방벽을 이루고 있는 산들이다. 남태령을 통해 동서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천연의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. 바위 투성이의 산인 관악산은 산세가 미더워 조선 태조에 의해 북한산, 용마산, 덕양산과 더불어 외사산(外四山)으로 꼽혔다. 또 개성 송악산, 가령 화악산, 파주 갑악산, 포천 운악산과 함께 경기오악(京畿五岳)의 하나다. 신라 문무왕 때 원효, 의상, 윤희 세 대사가 도를 깨닫고 성불했다는 삼성산도 관악산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.

관악산 방면 ■관악산 횡단 루트

서울대 정문 옆 만남의 광장에서 제4야영장을 거쳐 연주대에 올라선 다음 과천향교로 내려서는 코스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. (약 3시간30분)

■서울대 원점회귀 코스

만남의 광장에서 관악산과 삼성산 분기점인 무너미고개를 넘어 서울대학교실습림으로 내려서는 사이 왼쪽으로 산길이 여러 가닥 나온다. 그 중 한 가닥을 잡아 연주대로 오른 다음 신공학관 길이나 깔따고개-제4야영장 길을 따라 하산한다. 관악산 매니들이 최고의 암릉길로 꼽는 팔봉능선은 하산로로 잡는 게 수월하다. (약 3~5시간)

■과천 출발 원점회귀 코스

과천향교 매표소를 지나 나누는 계곡길과 능선길을 잇는 원점회귀 산행이 주로 이루어진다(약 3시간). 일명사지~426m봉~정상~남릉~육봉능선을 잇는 공업진흥청 원점회귀 산행은 한갓지면서도 암릉산행의 즐거움이 더해지는 코스다. (약 4시간30분)

■남북 능선 중주 코스

사당전철역 부근 남현동 관음사에서 출발, 북릉~559m봉~연주대~남릉~불성사를 거쳐 안양시 관악동에서 끝맺는 중주 코스는 일광무제의 조망과 스틸 넘치는 바윗길을 즐기면서 관악산 유일의 삼림욕장으로 내려서는 정쾌한 코스다(약 5시간30분). 안양종합운동장을 종로 지점으로 삼기도 한다. (약 6시간30분)

■삼성산 원점회귀 코스

만남의 광장에서 무너미고개로 향하는 사이 오른쪽으로 장군봉이나 삼막사로 오르는 산길이 여러 가닥 나온다. 그 중 철망 사이 문으로 접어드는 첫번째 갈림목에서 장군봉(412m)~국기봉(446m)을 거쳐 삼막사에서 올라서는 코스가 대표적인 등로다. 하산로는 무너미고개-제4야영장 길을 버려, 다양하게 잡을 수 있다. (약 2시간)

■호암터널 산복도로변 코스들

관악산 주요 등반 코스



호암사나 제1호암터널 북측 입구에서 출발, 장군봉을 거쳐 신우초등학교 하산(약 1시간30분)하거나, 장군봉 북릉을 따라 만남의 광장으로 내려선다. (약 2시간)

■관악산-삼성산 연결 중주 코스
관음사나 낙성대 위쪽 인현아파트에서 북릉을 타고 연주대로 올라선 다음 정상 서릉이나 팔봉능선을 거쳐 무너미고개로 접어들다. 이후 삼막사를 거쳐 안양사나 국기봉-만남의 광장 또는 장군봉~호암사(또는 신우초교)로 내려선다. (6시간 이상)

/한필석·월간산기자 pshan@chosun.com

교통편(전철 이용)

서울대 입구 : 전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(3번 출구)이나 신림역(3번 출구) 버스정류장에서 서울대행 버스 이용. 신공학관은 52번(신림역), 413-1번(서울대입구역) 이용. 낙성대역 4번 출구 뒤편에서 3번 마을버스를 타고 신공학관까지 올라간다.
남현동 관음사 기점 : 전철 2·4호선 사당역(5번 출구)에서 과천 방향 아형 언덕에서 마을길을 따르면 관음사 입구 매표소(약 600m)가 나온다. 매표소나 매표소 위쪽 배드민턴장에서 능선으로 접어들 수 있다.
과천향교 기점 : 전철 4호선 과천역(7번 출구)이나 정부과천청사역(11번 출구)에서 도

보로 접근한다. 10~15분 거리.
공업진흥청 기점 : 정부과천청사역(11번 출구)에서 도로로 약 20분 거리. 공업진흥청 담을 끼고 오른쪽 백운정사길로 접어들다.
안양 관악동 기점 : 전철 4호선 인덕원역(7번 출구) 건너편 정류장에서 안양공설운동장 방향이나 국철 1호선 안양역에서 인덕원사거리 방향 버스를 타고 관악중학교 앞에서 하차. 관악중학교 뒤편 아파트단지를 빠져나가면 관악산 삼림욕장이다.
안양유원지 기점 : 국철 1호선 관악역에서 경수산입도로를 건너 걸어서 안양유원지

접어들다. 안양사 기점인 공영주차장까지 1.3km, 서울대학실습림 입구까지 2.7km, 소공원을 거쳐 무너미고개로 가려면 실습림 직전 화장실 뒤편 길을 따른다.
삼막골 기점 : 국철 1호선 관악역에서 경수산입도로를 건너 삼막골로 접어들다. 차량통제소까지 2.7km, 통제소-삼막사 진입로 종료 지점 3km. 전철 2호선 신림역에서 호암사 방향 25-1번, 289-1번 버스를 타면 삼막사 입구 도로에서 내려준다.
석수역 기점 : 전철 1호선 석수역 동쪽 출구에서 시흥대로를 건너 마을길에 접어들면 남서울약수 능선길로 이어진다.

관악산 주변 맛집

관악산은 주변 어느 곳이나 도시형 음식점들이 즐비하다. 산자락에는 오히려 음식점 찾기가 어렵다.



◇관악산회관의 ‘관악산 갈비’.

■서울대 코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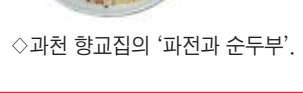
관악산회관(02-873-0943) 관악산휴게소 2층에 위치. 100평 규모 200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원한 공간의 식당. 단체 모임에 적격이고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. 해장국 4000원, 보리밥 5000원. 관악산 갈비 1만1000원.

■사당(남현동 관음사) 코스

암사동배다귀감자탕(02-582-6479) 전철 4호선 개동 이전부터 영업해 온 집. 배다귀감자탕 1만5000~2만5000원. 한나라닭갈비(02-588-5948) 닭갈비(7000원×2인) 전문점. 된장찌개 3500원. 닭곰탕 동태찌개 김치찌개는 각 4000원. 찬스병천순대(02-525-7511) 순대국 4500원. 모듬순대 1만3000원. 이상 3개 업소는 사당역 5번 출구 바로 옆쪽에 나란히 있다. 24시간 영업. 예송우동(02-584-9068)·짬구짬구(02-586-7141) 사당역에서 수원방향의 버스 정류장에 있는 김밥과 만두 전문점. 산행길 김밥을 예약해 놓고 찾아가 수 있다. 24시간 영업.

■안양유원지 코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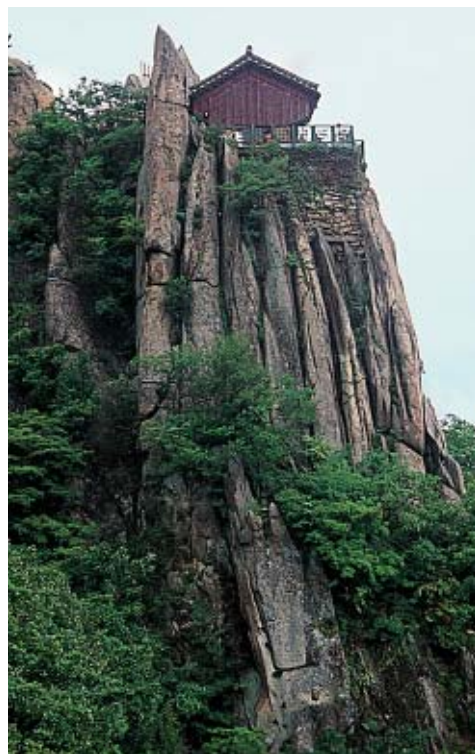
봉암식당(031-471-7428) 1968년에 문을 연 대형 식당. 계곡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3대째 살아온 토박이 부인은 맛의 고장인 남도출신이다. 과천하이트광장(02-504-6802) 전철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11번 출구. 고려빌딩 지하에 있는 대형 업소. 낫시간 식사에 야간 맥주집 형태로 운영. 참나무장작닭구이(1만1000원)가 특이하고 해물돌솥밥(5000원)은 주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식당. 하산길 해단식 장소로 쉼.



◇과천 향교집의 ‘과편과 순두부’.

■과천 코스

향교집(02-502-7584) 과천향교 옆에 있는 다채 업소 중 산을 오르다 첫 번째로 만나는 식당. 순두부(4000원) 목(6000원) 과편(7000원)에 하산길 막걸리(3000원) 한 잔으로 목을 축이는 곳. 과천 시내 직장인들의 점심집으로도 인기. 20년 전에 문을 열고 60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. 집주인은 이곳에서 3대째 살아온 토박이 부인은 맛의 고장인 남도출신이다. 과천하이트광장(02-504-6802) 전철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11번 출구. 고려빌딩 지하에 있는 대형 업소. 낫시간 식사에 야간 맥주집 형태로 운영. 참나무장작닭구이(1만1000원)가 특이하고 해물돌솥밥(5000원)은 주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식당. 하산길 해단식 장소로 쉼. /박재곤·산악인 ‘산따라 맛따라’ 저자 Woochoon@hitel.net



◇관악산 연주대의 위용.